



NEWS



연합뉴스

< |사 대통령직 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 >



뉴스홈 | 최신기사

KBL 전 경기 생중계 공수표..팬들 뿔났다

송고시간 | 2008-11-05 11:47

김동찬 기자
기자 페이지

전육 KBL 총재

(서울=연합뉴스) 김동찬 기자 = 전육 KBL 총재가 9일 취임하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'전 경기 생중계'가 개막 첫 주부터 어그러지면서 프로농구 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.

KBL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2008-2009 동부프로미 프로농구 정규리그 개막 1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팬들이 올린 중계 관련 불만 사항이 넘쳐나고 있다.

'전 경기 중계 장난치시는지'라든가 '수요일 중계-KBL은 무슨 생각이 있는지', '지금 중계 장난치는 건가요' 등의 제목이 팬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.



KBL 게시판뿐 아니라 각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중계에 대한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.

개막 바로 다음 날이었던 1일 부산 KTF와 인천 전자랜드전은 부산 MBC에서 생중계했지만 정작 인천 팬들은 TV를 통해 볼 수 없었고 2일에는 두 경기가 녹화로 편성됐다.

마침 이 두 경기는 전자랜드가 원주 동부를 1점 차로 꺾은 경기와 대구 오리온스와 울산 모비스가 연장 혈투 끝에 1점 차로 희비가 엇갈린 명승부였기 때문에 팬들이 느끼는 아쉬움은 더 컸다.

이번 주도 5일 잠실 경기, 6일 안양 경기가 녹화 중계되고 9일에

1010회
모토당첨결과 9 12 15 25 34 36 + 3

핫뉴스 →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험도 불합격

프로야구 LG-SSG전 오심 내린 심판, 2군 강등 징계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'그날'...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"

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.

기원전 2-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

한국 유튜브버,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 ...

박찬욱, 칸 초청에 "기쁜 볼스식...오래 기립박수 칠...



는 4경기 가운데 잠실은 녹화, 울산 경기는 경인방송을 통해서만 볼 수 있게 됐다.

김인양 KBL 사무국장은 "전 경기 생중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기가 프로야구, 프로축구 등과 겹치는 때"라며 "1~2주 정도 지나면 정상적으로 모든 경기가 생중계될 것"이라고 답했다.

결국 지난 시즌과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전육 총재가 내건 공약은 말 그대로 '공약(空約)'에 그치게 되는 셈이다.

KBL은 또 두 경기씩 열리는 5,6일에 한 경기장에는 두 방송사가 동시에 생중계를 하면서 남은 한 경기는 녹화 중계를 하게 되는 비효율성도 조절하지 못했다.

"프로농구 중계를 하는 세 방송사에 순번이 정해져 있는데다 편성은 방송사 고유 권한이라 어쩔 수 없었다"라는 것이 KBL 입장이지만 올해 중복되는 중계가 없었던 프로야구를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.

물론 전육 총재 취임 이후 MBC-ESPN이 새로 프로농구 중계에 가세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.

김원섭 KBL 총재특보는 "방송사 편성 및 광고 관계나 자체 인력 상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 경기 생중계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"이라고 말했다.

그러나 프로배구를 주관하는 한국배구연맹(KOVO)은 중계 채널이 KBS N 스포츠 하나지만 두 경기가 동시에 열릴 경우 KBS프라임이나 KBS조이를 통해서라도 모두 생중계를 하고 있다.

또 전 경기를 SBS스포츠와 자체 인터넷방송을 통해 생중계하는 한국여자농구연맹(WKBL)과 비교해서도 뒤떨어진 다.

KBL은 후발 주자 격인 KOVO나 WKBL에 대해 '아직 우리가 한 수 위라고 내심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중계방송 과 관련해서는 아직 보고 배워야 할 수준으로 보인다.

emailid@yna.co.kr

🔗 관련기사

KBL 총재에 전육 전 중앙방송 사장(종합)

전육 KBL 총재 "전 경기 TV중계 목표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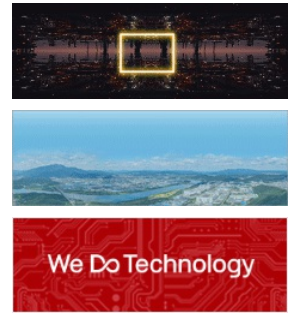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08/11/05 11:47 송고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

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

현장 영상 →



에디터스 픽 Editor's Picks

● 영상

▶ 01:59

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'패상' 질문에 "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"

● 뉴스



▶ 01:18 ▶ 02:22

[영상] 입·발 묶인채 두 눈만 열쫘쫘...누가 학대했나 [영상] 곡사포·수송헬기·장갑차...美, 꺼쫘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

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아우 방위장관 링컨 등 후보군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, 2년 17개월만 종료...마스크는 그대로

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..."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"

尹 당선인 "韓,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...美와 더 강력한 동맹"

'검증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

"의학에 뜻" 정호영 아들,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"



댓글 많은 뉴스

- 1

김건희 여사 팬카페, '악성 댓글'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

135
- 2

정호영 자녀,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

60
- 3

'유퀴즈'尹당선인 출연 논란..."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"(종합)

56
- 4

두문불출 이재명, 이발·염색...조기등판론 속 할동재개 예열?

41
- 5

문대통령, 손석희와 대담...靑 "임기 5년 사회발힐 예정"

37

뭐하고 놀까? #홍→

유튜브 채널



SNS



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

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#D 그래픽

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

테마별뉴스 핫뉴스 토픽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

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다스

뉴스+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토픽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

광고 KTX 열차 APEX 공항철도 모바일 PC/홈페이지 출판물

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

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

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

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(K-ODYSSEY) 채용 IR 클럽 #홍

계약사제휴문의

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지문위원회 고충처리

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계시판 기사제보(02-398-3000) 사이트맵

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| 등록번호 문화, 나00009 | 등록일자 1980.12.29 | 발행일자 1980.12.29 | Tel. 02-398-3114

(C) [대표이사] 성기홍 [편집인] 조채희
Yonhapnews